호남, 종업원 1인당 순이익 1위

상반기 3억8000만원으로 … LG석유화학·SK도 상위권 진입

상장기업 종업원들은 2005년 상반기 1인당 3억5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상반기 종업원 1인당 수익성 현황>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의 상반기 매출액은 284조5963억원에 달해 전체 종업원수 80만1817명으로 나눈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3억5494만원에 달했으나, 전년동기대비 0.08% 줄어들었다.

상장기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864만원과 2653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9.53%와 22.09% 줄었다.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3억1271만원, 영업이익은 2501만원, 순이익은 2385만원을 각각 기록해 비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 4억8261만원, 영업이익 3960만원, 순이익 3460만원보다 모두 낮았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5대그룹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도 4억525만원으로 7.38% 줄었고, 1인당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966만원과 3001만원으로 49.08%와 40.33% 급감했다.

비 5대그룹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3억2385만원으로 4.8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800만원과 2437만원에 그쳐 8.79%와 2.01% 줄었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세양선박이 50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가스 44억9600만원, E1 37억900만원, 쌍용 36억3800만원, SK네트웍스 36억2700만원, LG상사 28억200만원, S-Oil 21억3500만원, SK 19억9600만원 순이다.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은 호남석유화학이 3억8600만원으로 최고였고 다음으로 대한해운 3억500만원, 세양선박 2억300만원, SK텔레콤 1억9300만원, LG석유화학 1억7600만원, 아인스 1억5700만원, SK 1억5600만원 순이다.

삼성전자는 종업원수가 6만74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5만3988명, KT 3만7659명, LG전자 3만2793명, 기아자동차 3만2482명 순이다.

<화학저널 2005/08/3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